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6

통권 27호

June 2007

| 이달의 이슈 |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

김 철 원(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 경제포커스 |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

금 기 용(서울시장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컨벤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진 흥 석(아리랑국제방송 컨벤션사업단장)

| 생생리포트 |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을 꿈꾸다

강 현 주(서울시장개발연구원 연구원)

| 자치구탐방 |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이 동 명(강북구청 재정경제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7. 6

차 례

이달의 이슈	3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 김철원(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경제포커스	11	국제회의 개최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적 의미 금기용(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21	서울시 컨벤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진흥석(아리랑국제방송 컨벤션사업단장)
생생리포트	37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 을 꿈꾸다 강현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자치구탐방	75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이동명(강북구청 재정경제국장)
경제동향	85	요 약
	86	경 기
	94	고 용
	102	부동산
	110	금 융
부록	123	통계표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

김철원*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kimcw@khu.ac.kr



들어가면서

유럽의 사회학자 Appadurai(1990)는 작금의 국제사회는 5가지의 국제적 흐름(global flow)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technoscape), 자본력(financescape), 사람의 이동(ethnoscape), 미디어(mediascape), 이념(ideoscape)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사회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연속으로서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갈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자국의 이익이 과다하게 작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악의 사태를 막고 안정된 국제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Texas A&M 대 여가관광학 박사
- 한국관광학회 및 컨벤션학회 부회장
- 컨벤션, 국제관광, 관광가치사슬체계

식체계를 공유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서로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 만나서 현안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에 컨벤션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제회의 도시지정의 의미

컨벤션은 지식집약형,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해당 도시의 마케팅을 촉진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컨벤션은 레저, 숙박, 유흥, 식음료, 교통, 통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복합 산업으로 지식,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함께 도시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00년 이후 53개 도시의 컨벤션센터를 신축, 확장하였으며, 44개 도시에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유럽의 도시는 물론, 중국의 상하이, 북경 그리고 홍콩 등 아시아 각국도 경쟁적으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간 첨예한 경쟁 상황 하에서 한국이 컨벤션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서비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보, 지식, 인적자원 교류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새로운 핵심역량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컨벤션 클러스터를 통하여 가치사슬을 창출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국제회의 도시지정이다.

우리나라도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98년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03년 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적 지원체계와 지원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0월에 서울, 부산, 대구, 제주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컨벤션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다양한 컨벤션 육성 지원책들이 있지만 “국제회의 도시” 지정만큼 거시적이며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전문 컨벤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추진한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전문컨벤션 시설 보유지역이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국제회의에 관한 상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컨벤션 관련단체나 민간기구가 국제적 컨벤션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공신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컨벤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의 도시는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의장, 숙박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서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주변에 존재하는 등의 제반 환경조건이 정비되어 있으며 지역의 국제회의 관련기관에 의하여 적절한 국제회의 산업 진흥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도시 혹은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도시로는 일본의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홍콩, 싱가포르, 태국의 방콕, 파타야, 푸켓, 필리핀의 세부, 다바오, 바기오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 도시는 단순히 대규모의 회의장이나 종합전시장과 같은 전문회의시설을 건설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유치를 통해 지역외부로부터 사람들을 유치하여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도시전체가 하나가 되어 도시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해 나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회의 도시지정 효과

일반적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컨벤션산업의 진흥은 국제적인 인적교류 및 참가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정보교환으로 국제간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컨벤션개최에 따른 개최도시의 홍보와 개최지역 기반환경의 정비촉진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의 지역적 편중현상과 관광비수기 타개에 기여한다. 이러한 컨벤션산업을 특정도시에서 육성하면, 해당도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존산업과 복융합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 도시는 지식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도시경제는 활력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이다.

컨벤션산업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이며, 지식

기반산업이다.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아마코스트 소장이 언급한 바처럼, “21세기 신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요소가 부의 창출에 점차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는 주장은 컨벤션산업의 특성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은 대규모 공장에서 소규모 지식산업으로의 변화로 이동하는 산업구조의 개선으로, 지정된 도시 내의 호텔, 항공, 컨벤션시설, 국제회의전문업(PCO), 여행사 등 서비스 상품이 주된 구성요소인 3차 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전이시키고 경제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도시의 국제화와 고도화이다.

도시의 국제화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을 다루는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컨벤션은 IT, BT, CT 등을 포함하여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다루는 모든 분야를 조직화하여 도시의 국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구조 자체를 고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국제회의도시지정은 도시의 국제화뿐 만 아니라, 도시의 구성원인 도시민의 국제적 감각을 함양시키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수요 창출이다.

컨벤션참가자는 단순히 회의에 참가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얻어가는 일차적 목적 실현뿐 만 아니라, 참가지역의 관광지 매력을 즐기고자하는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컨벤션참가자는 일반관광객보다 약 1.9배정도의 높은 소비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방문하는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런 관점에서 컨벤션산업을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식산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컨벤션개최지는 관광목적지로서의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국제회의도시지정 자체가 관광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 동인이 될 것이다.

넷째는 도시홍보의 제고이다.

국제회의도시지정은 경제개발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도시의 이미지 고양, 문화, 예술, 교육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효과도 크다.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벤션은 도시마케팅의 수단이고 도시를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유용한 틀이다. 그러므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자체가 도시 홍보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산물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도시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국제회의 도시지정은 홍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크다.

다섯째는 도시민의 교육문화적 효과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통하여 국제회의가 활발하게 개최되면 개최 도시 내에 정보교환과 학술교류 등을 통해 개최도시의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 지식, 기술, 노하우 등을 접하며 지적 자극을 받게 되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지정해당도시가 국내외 정보의 집중 발생거점으로 발전되고, 대외적인 도시이미지의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참가자와 도시민과의 다면적인 교류의 전개를 통해 문화와 교육수준의 고양 혹은 새로운 도시문화가 창출된다.

나가면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은 서울이 컨벤션 허브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정보와 문화, 디지털 콘텐츠, 인력이 집중하는 컨벤션 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창출로 국제회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컨벤션산업의 지식기반화, 컨벤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컨벤션 벤처 콤플렉스의 조성,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전시 엑스포의 개발, 글로벌 탠런트를 가진 컨벤션 전문 인력의 육성, 국내외 전략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컨벤션이 서울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추진 주체들의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노력과 함께 신명나는 열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셉 파인(Joseph Pine)은 21세기 경제를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라 규정하고 원두커피 생산에서 스타벅스로 발전하는 과정을 경제적 가치가 ‘필수품’에서 ‘상품’으로, ‘상품’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경험’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언급한 바 있다. 컨벤션은 경험의 상품이고 미래의 중요한 분야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SDI**